

# '지식공유연대'와 OA 운동

---

학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정책 토론회

박 속 자  
대중서사학회,  
지식공유연대

##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지식공유연대)

---

- 5월: 민간DB업체 계약 관련 학회관계자 모임(국문학계)
- 6월: 학술지식의 유통 과정 논의 모임(+ 사회과학 연구자, 독립연구자)
- 7월: 학술지식 생산과 유통 과정 모임(+ 문헌정보학)
- 8월: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9월: 대안적인 가치모델 탐구 논의 시작: 지식커먼즈 플랫폼 논의
- 10월: 국어국문학(한국학) OA 선언 준비
- 11월: 대안적인 가치 모델 탐구: 학술지 평가와 지원 논의 시작

2020년 2월 7일 창립 총회 예정

# 목차

---

1. 새로운 학문생산체제를 위한 지식공유연대
2. 공공적 가치와 지식커먼즈
3.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OA와 지식 커먼즈
  - 1) 지식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지식 커먼즈 플랫폼: 운동으로서의 OA
  - 2) 공공적 가치 모델의 창안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도로서의 OA
4. OA 출판으로 전환하는 학술지의 문제점과 해결책

# 1. 새로운 학문생산체제를 위한 지식공유연대

<https://knowledgecommoning.org>

“우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삶과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술성과의 유통에 관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정책을 개선하고, 학회 및 학술지 운영에 관련된 연구자 문화를 성찰하여 스스로 바꾸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학술 연구를 공공적인 것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경쟁과 성과주의에 물든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구결학회, 구보학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근역한문학회, 대중서사학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책연구소, 민족문학사학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상허학회,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 집, 인문학협동조합,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고소설학회, 한국고전문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극예술학회, 한국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학치료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사고와표현학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시가학회, 한국시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한문학회

#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선언

---

## 첫째, 지식 생산 및 활용의 공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 1) 연구자들의 논문 집필·연구 활동뿐 아니라 학술지 편집, 논문 심사, 학회기획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문·사회과학 학회가 학술정보 업체들과 맺고 있는 계약관계는 재고되고 다시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 2)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전자 논문 제공 방법은 확고한 지식 공유(오픈액세스 등) 정신에 입각하여 개편되어야 하며, 지식 생산자인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3) 도서관들도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과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대학들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발간에 대한 정부 및 학술진흥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둘째, 학문과 지식 생산의 공공성·합리성을 위하여

- 1) 한국연구재단의 학회 및 학술지 평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며, 대학 또한 논문 편수로 연구자와 대학 교육자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잘못된 제도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질적 평가제도의 확충은 물론, 연구자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적절히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2) 우리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도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개선·개혁해야 합니다. 논문 양산 체제에 모래알처럼 된 연구자들이 굴종하고 학회들이 그 경쟁 단위가 되고 만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학회들의 협동과 공동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 3) 학회가 더 이상 경쟁과 착취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술 활동을 빌미로 한 대학원생의 그림자 노동과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한 차별은 사라져야 하며, 학벌·학연 등에 의한 학회 운영과 학교 이기주의도 폐기처분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학문생산체제를 위한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공동 심포지엄



- ✓ "현재의 학회는 지속불가능한 각자도생과 신자유주의 대학체제...학문적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필요"(천정환)
- ✓ "국내저널의 급격한 인상 추세, 연구자들 저작권 인식 미비, 전문출판사의 부재(학회가 출판 담당)...연구자와 학회의 의사와 무관한 한국연구재단의 OA 정책"(류준경)
- ✓ "연구재단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학술지식 생산, 양적 평가 중심, 지식의 사유화, 탈정치화된 지식 양산 문제"(박배균)

## 2. 공공적 가치와 지식커먼즈

---

연구재단의 기준에 맞는 논문과 학술지만 업적으로 인정받게 됐고, 정부와 대기업 프로젝트의 수주로 연구자의 능력이 판가름나게 되었다. 정부와 언론은 평가를 통해 대학을 줄 세웠다. 자유로운 비판적 연구모임들은 제도권 학회로 변신했고, 대중을 향해 말을 걸던 독립 학술지들은 필자와 심사자만 보는 연구재단 등재지로 변신했다. 혹은 동의해서, 혹은 살아남으려고 상당수 '교수지식인' 이 이 체제에 순응했다. 한때 한국에서 대학은 고고한 희망의 사다리였다. 거기 가서 엘리트가 되었다. 지금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이 된 대신 공고한 서열과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으로 민중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 ... 나는 떠나는 쪽을 선택했다 ... 남아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어떻게든해보셨으면 한다.

(조형근, [대학을 떠나며], 한겨레신문, 11.10)

## 사례1

### 연구자의 학습권, 학술정보의 정보접근권

- ✓ 시간강사법이 통과되면서 독립 연구자가 늘어났지만 대학 소속이 아닌 연구자가 논문 검색, 열람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통상 5000-8000원 하는 논문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 논문 가격이 부담스러워 국회도서관을 찾아갔지만, 여기서도 논문 다운로드는 안 되고 프린트에도 비용이 든다. 국회도서관에는 직접 가야 볼 수 있는 디지털 원문이 많고, 원문을 출력할 때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 많다. 독립연구자가 된 이후에는 자기 논문조차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학계 바깥의 사람으로서....연구자료들이 학계 바깥과 쉽게 공유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예요. 고생하신 연구 작업물을 학계 바깥의 사람들도 배우고 혹 이견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경로가 더더 용이하게 만들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지식공유연대>페이스북

“만약 논문 읽기를 취미로 삼은 사람이라면 대단한 주의를 요한다.특히 학생이 그런 취미를 삼았을 경우 더욱더. 유료 논문을 원활하게 열람하고 싶다면 몇백만원 이상의 지출이 요구되는데, 학생일 경우 유료 논문은 용돈 200만원 이상이 아닌 이상 과감히 포기하자”



## 사례2

### 폐쇄적인 학회 운영: 비민주성, 그림자노동

- ✓ 학술지 평가를 앞둔 학회 운영진은 누가 이 일을 떠맡을 것인지 고민한다. 학회지 평가가 ‘인증’이라고 하지만, 이 평가에 학회 운영진은 사활을 걸고 ‘자체평가서’와 ‘정성평가 설명자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지식의 대중화’를 생각해서 학술대회를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기획했는데, 이것을 해내야 하는 것 역시 학회 운영자. 엄밀히 말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살아가는 전임교수의 ‘봉사’와 업계에서 강의 자리를 얻어야 하는 비정규직 교수, ‘그림자 노동’을 하는 대학원생이다.

"학술 활동을 빌미로 한 대학원생의 그림자 노동과 비정규직 교수 차별은 사라져야 하며, 학벌·학연에 의한 학회 운영과 학교 이기주의도 폐기처분해야 한다"(지식공유연대 심포지엄)

"조교와 간사, 연구자로서 지식 생산과 대학 행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직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대학원생들이 인권침해와 노동권 착취"(구슬아,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 위원장)

## 경쟁적인 논문 양산 체제 – 새로운 가치 모델 필요

✓ 한달 전 학술지 지원 결과가 발표되었다 OOOOOO학회가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연구재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어보니 “선생님 학회가 학술지를 3번 내셔서 점수가 부족했다”고 하면서 4번을 내시면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학회지 지원 때문에 4번을 내야 하나 고민이다.

구분	심사 내용(배점 기준 포함)	배점																
등급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마감일 기준, 학술지의 우수등재/등재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li> <li>- 우수등재학술지에만 점수 배정</li> </ul>	8점																
발행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도 발행(예정포함) 횟수(발행규정 기준 : 정규 발행호만 인정)에 따라 점수 부여</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배점</th> <th>1점</th> <th>2점</th> <th>3점</th> <th>4점</th> <th>5점</th> </tr> </thead> <tbody> <tr> <td>구간</td> <td>1회</td> <td>2회</td> <td>3회</td> <td>4-5회</td> <td>6회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Q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선정 후 허위 기재 발각 시 전액 환수)</li> </ul>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구간	1회	2회	3회	4-5회	6회 이상	5점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구간	1회	2회	3회	4-5회	6회 이상													
논문 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연간 게재 논문 총 편수(실적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배점</th> <th>0점</th> <th>1점</th> <th>2점</th> <th>3점</th> <th>4점</th> <th>5점</th> <th>6점</th> </tr> </thead> <tbody> <tr> <td>구간</td> <td>10편 이하</td> <td>11~20편</td> <td>21~30편</td> <td>31~45편</td> <td>46~70편</td> <td>71~100편</td> <td>101편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I에 등록된 정규호 발행의 정규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함(선정 후 허위 기재 발각 시 전액 환수)</li> </ul>	배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구간	10편 이하	11~20편	21~30편	31~45편	46~70편	71~100편	101편 이상	6점
배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구간	10편 이하	11~20편	21~30편	31~45편	46~70편	71~100편	101편 이상											
온라인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n/Free Access인지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li> <li>- KCI 혹은 홈페이지 등에서 Open Access/Free Access인 경우 6점</li> <li>- 학술단체 홈페이지 및 기타 관련 사이트 등에서 유료 공개인 경우 2점</li> <li>- 미공개인 경우 0점</li> </ul>	6점																

## 사례4 '공공목적'을 위축시키는 민간DB의 전횡과 독점성



OOOO학회는 민간디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 비용으로 일 년에 66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몇 년 전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무료로 이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홈페이지를 교체하려니 홈페이지 들어간 시간과 자료 관리가 고민된다. 이 민간디비 업체로부터 일년에 받는 저작권료 수입은 100-150만원 사이다. \*\*\*\*학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학회는 또 다른 민간디비 업체와 계약했는데, 저작권료로 150만원 이상을 받긴 하지만 초기 구축비용을 지원, 이를 알선한 투고시스템 업체에 매달 11만원씩, 연간 132만원을 지불한다. 학회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얻는 수익은 없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2,438종 중  
1,952종(80%)이 유료DB로 유통”

“갑의 **공공목적** 또는 자체적인 회원유치나 기존 회원에 관련된 콘텐츠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본 계약과 무관하게 ‘갑’ 자체의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다”(2012년 계약서)

“학회의 학회홈페이지와 학술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회의 자체 판단으로 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다”(2019년 계약서)

2012년도 계약에는 학회가 '**공공목적**'으로 학술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19년도 계약은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모호함. 공공목적으로 학술지 서비스한다는 것은 KERIS의 RISS, KISTI의 NDSL, 연구재단의 KCI에서 원문을 공개할 수 있는 것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학술지를 공개하면 논문이용이 확대될 수 있음. 특히 KCI에 논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원문이 공개되는 것은 아님. KCI에서 원문을 공개하려면 누리미디어와의 계약에 공공목적으로 학술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2019년도 계약에 따르면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릴 수 없음. 전송권을 누리미디어에 양도했기 때문임. 2012년도 계약에서는 원저자의 저작물 활용도 허용하고 있음. (2019년 계약서 법률 자문 결과)

# 사례5

## OA 출판의 몰이해 : '학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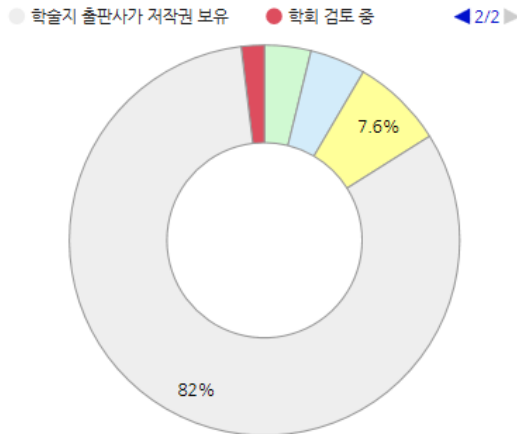
✓ 한국연구재단은 2019년 학술지 사업과 관련하여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KJCI)**” 등록을 평가 신청자격 중 하나로 신설” 했다. “이는 국내 학회의 학술지 저작권 정책 수립 및 명문화를 지원함으로써 학술지 논문의 활용도를 상승시켜 오픈액세스(OA)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하는 조치라고 공지했는데, 사례 4에서 보드시피 학회가 민간디비 업체와 맺고 있는 저작재산권 계약 수준과 괴리된 정책이다.

원문접근정책 (Reader Rights)	재사용정책 (Reuse Rights)	저작권 정책 (Copyrights)	셀프 아카이빙 정책 (Self-Archiving)
오픈 접근	저작자 표시 자유로운 이용 가능 (CC-BY)	저자가 모든 저작권 보유	심사 전후 논문 어디에도 아카이빙 가능
오픈 접근 6개월 이하	저작자 표시-비영리(CC-BY-NC)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CC-BY-NC-SA)	저자가 저작권 보유 (단, 몇 가지 제한사항 있음) 공동 소유	심사 후 논문 어디에도 아카이빙 가능
오픈 접근 6개월 이상	저작자 표시-변경금지(CC-BY-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BY-NC-ND)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보유 (단, 저자와 이용자에게 몇 가지 권리 허락)	심사 후 논문 특정 장소 아카이빙 가능
-----	-----	-----	심사 전 논문 특정 장소 아카이빙 가능
구독 회원가입 등	범용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	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보유	아카이빙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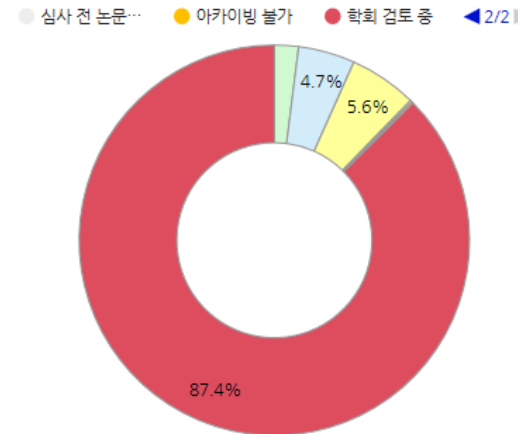
“국내 학회의 학술지 저작권 정책 수립 및 명문화를 지원함으로써 학술지 논문의 활용도를 상승시켜 오픈액세스(OA)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한국연구재단>

게재 논문의 '저작권' 양도는 OOOO학회가 본 학회의 홈페이지 및 전문업체 계약을 통하여 PDF 파일로 제작한 既 게재논문을 유,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게재논문의 '저작권' 양도에 동의하더라도, 논문의 '원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므로 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른 간행물에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게재논문'의 '저작권'은 <OOOO> 게재 논문의 지적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회에서 게재논문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목적도 이러한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의 개인별 논문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학회 저작권 양도 공지문>

저작권 정책 통계 ( 1302 건)



셀프 아카이빙 정책 통계 ( 1302 건)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 <http://copyright.oak.go.kr/search/copyrightAnalytics.do>

## 사례6

# 공공, 대학도서관의 공공적 가치 인식 부족



000구 도서관은 ‘전자저널 원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저널 DB가 ‘디비피아’였다. 안내문만 보자면 “전자저널=디비피아”로 오해하기 쉽게 디비피아를 알리고 있었다. 민간디비이지만 공공디비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대학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0000도서관 상단 ‘전자학술정보’ 배너에, DBpia, e-article, KISS(한국학술정보), 스콜라가 각각 게시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곧바로 사이트로 연결된다. RISS나 KCI 배너는 없다.

자료마당 이용안내 독서문화행사 문화교실 참여마당 특색사업 도서관안내

자료마당

전자저널

책으로 여는 미래, 미래를 여는 문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홈 > 자료마당 > 전자저널

통합자료검색  
신각자료  
추천도서  
새로 들어온 자료목록  
연속간행물 자료목록  
**전자저널**  
희망도서관장

전자저널 DBpia 소개

DBpia는 국내의 우수 학회, 출판사 및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전체 주제분야의 학술 논문 및 기사를 장간호부터 최근호까지 원문형태로 제공하는 국내 학술 DB 서비스이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현황


01. DBpia: 국내 간행물 2,000여 종
  - 학술분야: 2,000여종
  - 전문 또는 일반분야: 50여종
  - 학술논문(기사): 230여만편
01. 국가지식(첫단추): 지식 연계 서비스

# 대학도서관 사례


전자 학술정보	S.D 학술논문 서비스	T&F Talyor & Francis	Sage
CNKI	PQDT 해외학위논문	Nature	Cell
DBpia	e-article	KISS 한국학술정보	스콜라
표절검사 프로그램	d.C 학술정보 유통시스템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KOCW


공용SW설치 (교직원전용)	Office365 신청 (재학생전용)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교육과정의 이해  
공통제 | 2019




(가정경제 전문가 김영돈의)3  
분 경제특목  
조이스북 | 2019



(공학도를 위한) 전기자기학  
마지원 | 2019



과학적 컴퓨팅을 위한  
파이썬  
홍통과학 | 2019



(교육소의 극복을 위한)교육  
복지와 학교혁신  
한국학술정보 | 2019

[더 많은 신학도서 보기](#)

## 주요학술DB



e-Article



턴잇인



WIPSON

Web of Science

Web of Science



Scopus

[더 많은 학술 DB 보기](#)

## 사도 너 찾아보기

Try another search

원하는 검색결과를 찾지 못하셨나요? 구글 스콜라에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검색

## 찾는 자료가 없으면

Ask a librarian



## 사례7

# 학술생태계의 무질서와 연구자의 개별화

- “논문을 통한 지식의 대중화를 기치로 디비피아가 3년 전부터 지속해온 사회 공헌 사업으로 디비피아는 그동안 사회 이슈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우수 논문”을 10편 선정, 원문을 무료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수시 #정시’ 키워드로 10편을 선정했는데, 선정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사회공헌사업’일 수 있지만, 민간디비가 ‘우수’라는 기호로 학술지식을 줄세우는 것이며 학술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이다.

DBpia 로그인만 하세요.  
국내 우수논문 10편이 원문 그대로 찾아갑니다.

회원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 하단의 지식누림 버튼을 클릭-  
DBpia가 직접 추천한 최신 이슈논문을 확인하세요!

기관인증 | 로그인 | 회원가입

이달의 지식누림    지난 지식누림

### 대입제도

수시전형의 불공정 논란,  
연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용기간: 11월 1일-12월 31일

DBpia가 대입제도를 연구한 10편의 우수논문을 추천합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수시 #정시

DBpia가 추천하는 키워드 연관 논문

논문 모두 저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제도 인식 분석  
문정주, 최을 | 한국사회학회 | 한국사회학 | 53 (3) | 2019.08 | 175 - 215(41 pages) | KCI우수등재

## PUBLIC

1. 공공도서관의 정보접근권 확대(+ 연구자의 학습권)
2. 대학도서관의 공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구독, 연구지원, 검색 환경)
3. 효율적인 학술지 출판 시스템  
기술적 지원  
(전주기 출판 시스템)
4. OA 출판 장벽 제거를 위한 국가 지원 (경제적, 법률적 지원)

## COMMONS

1. 학술지식의 공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지식커먼즈 운동
2.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위한 연구자들의 연대와 협력(학회간, 연구자간 호혜주의에 입각한 관계)
3. 원저작자의 권리와 저작권재산권의 공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  
(+ 셀프 아카이빙)
4. OA 출판을 위한 내적 동기

독자 도서관 대학 재단 정부가 각기 다른 이유로 OA를 원하고 있지만 OA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의 저자들을 안내하고,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는 것 정도다. 이런 점에서 OA 캠페인에서 실제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자들이다. OA 추진의 최대 장애물은 저자들의 무관심 또는 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 [지식의 공유], 타임북스, P.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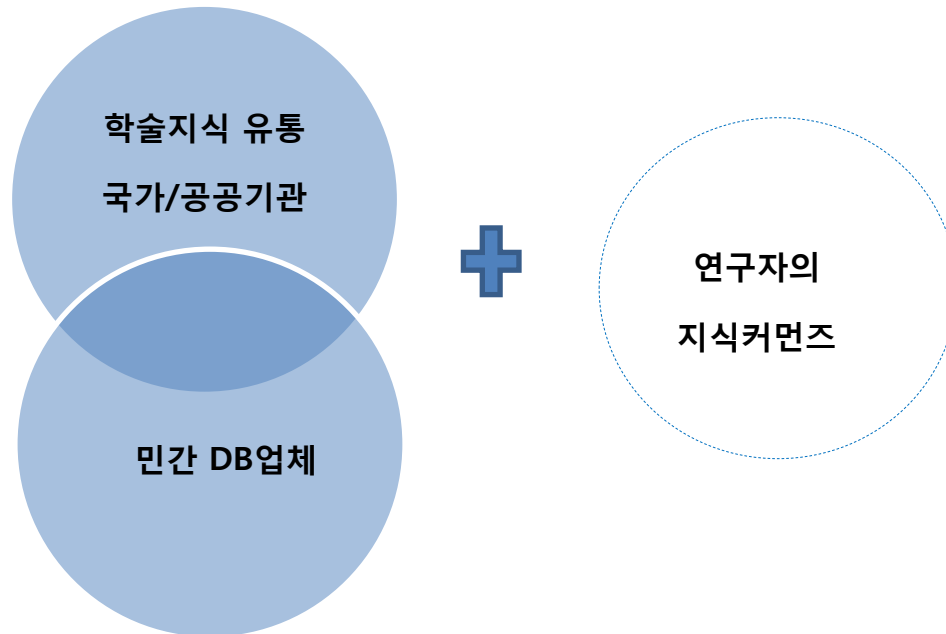
“학술 지식은 이미 생산된 기존 지식의 기반 위에서 생산된 것으로 단독 연구라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속성은 ‘사회적 협동’의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동료평가를 거치며 학문공동체 안에서 배양된다는 점 또한 학술 지식이 공공성을 띄게 되는 근본적 이유이다.”

공유자원으로서의 학술지식  
지식커먼즈의 재가치화

### 3.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OA와 지식 커먼즈

---



- ✓ 지식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지식커먼즈 플랫폼:

지식 커먼즈의 토대, 연구자들 간 협력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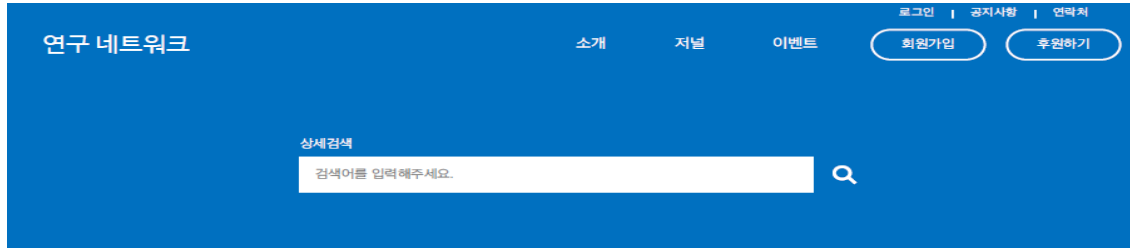
- ✓ 학문분야별 학회 연합 네트워크:

국어국문학, 한국학 인접 학회 OA 선언 예정

“지식 생산자인 연구자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지식공유연대>

학술지 발행 지원을 통해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학술지 발행 및 다양한 정보 유통을 지원하여 학회 등 학술단체의 학술 활동 활성화  
 <2019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공고문>

# 지식커먼즈 플랫폼(OA 학술지) 초안



## 학회별 검색

국제통상연구소	동아시아역사연구회	문학예술연구회	문화사회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화사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학회	사월혁명연구소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제주43연구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최신 연구

<p>경계와 사회 122</p> <p>분단을 넘어선 평화는 어떤 것일까? &gt;</p> <p>이희영 (2019)</p>	<p>역사문제연구 41</p> <p>이론의 종속과 종속의 이론: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한국 사회과학 학계와 종속이론 &gt;</p> <p>윤창준 (2019)</p>	<p>공간과 사회 68</p> <p>여성주의적 공간론 지리학적 상상력의 선회를 위하여 &gt;</p> <p>김희정 정현준 (2019)</p>	<p>역사연구 36</p> <p>노동하는 신체와 '국민' 되기 &gt;</p> <p>최규지 (2019)</p>
---	--	--	---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 집>

## News



Columbia University joins OLH LPS model

## Featured Journals



Comics Grid



C21 Literature:  
Journal of 21st-  
Century Writing



Journal of British  
and Irish Innovative  
Poetry



Journal of  
Embodied  
Research



Orbit: A Journal of  
American Literature



Digital Studies /  
Le champ numérique

Open Library of Humanities <https://www.openlibhums.org>



✓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정보 인프라의 가치

오픈 액세스를 통한 개방적인 학술정보 유통과 정보 접근권 확대

학술지 OA 저작권 정책 수준 확인하기(컨설팅 시뮬레이션)

원문접근정책 (Reader Rights)	재사용정책 (Reuse Rights)	저작권 정책 (Copyrights)	셀프 아카이빙 정책 (Self-Archiving)
<p>오픈 액세스</p> <p>엠바고 없음</p>	<p>저작자 표시 자유로운 이용 가능 (CC-BY)</p>	<p>저자가 모든 저작권 보유</p>	<p>심사 전후 논문 어디에도 아카이빙 가능</p>
<p>엠바고 6개월 이하</p>	<p>저작자 표시-비영리(CC-BY-NC)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CC-BY-NC-SA)</p>	<p>저자가 저작권 보유 (단, 몇 가지 제한사항 있음) 공동 소유</p>	<p>심사 후 논문 어디에도 아카이빙 가능</p>
<p>엠바고 6개월 이상</p>	<p>저작자 표시-변경금지(CC-BY-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BY-NC-ND)</p>	<p>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보유 (단, 저자와 이용자에게 몇 가지 권리 허락)</p>	<p>심사 후 논문 특정 장소 아카이빙 가능</p>
<p>-----</p>	<p>-----</p>	<p>-----</p>	<p>심사 전 논문 특정 장소 아카이빙 가능</p>
<p>구독 회원가입 등</p>	<p>법률상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p>	<p>학술지 출판사가 저작권 보유</p>	<p>아카이빙 불가</p>

##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위한 '로드맵' 개발

2018.11

- 1)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책
  - 저작권은 학회,
  - 라이선스는 CC-BY NC ND(Noncommercial, Nonderivative)
- 2) 원문서비스
  - 공공영역, 상업영역에 모두 공개
- 3) 출판비용 확보
  - 인쇄본 중단, 심사료를 출판비로 전환
- 4) 출판 및 유통 플랫폼
  - 공공영역에 지원요청

- 편집비용 인상
- 편집인력 인건비의 현실화
- 안정적인 출판플랫폼을 통한 원문서비스

JAMS-KCI·RISS·NDSL을 사용하여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할 경우 이러한 전환에 드는 투고관리·심사관리·편집관리·아카이빙관리·플랫폼관리 등의 학술지 출판비용은 고스란히 개별 학회의 부담이 됨

# ★ OA 출판을 결정한 학술지의 문제점과 해결책

## 상용DB업체의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 (KCI), (RISS), NDSL,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민간 DB '비배타적 이용허락 계약' 체결

+ 지식커먼즈 OA 플랫폼, 네트워크

##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의 논문 파일 필요

- 과월호 학술지를 스캔해야 함

+ 국립중앙도서관 지원

##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시스템(비용 문제)

- 논문투고 (JAMS)와 학술지 유통(홈피) 등의 유지 관리 비용
- 저작권료와 그림자 노동을 양성화할 수 있는 출판지원금

+ 학술지 전주기 출판지원 시스템

+ OA 출판 학술지의 전면 지원

## 저작권

- CC BY-NC-ND 라이선스를 적용(또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원저작자의 권리와 셀프 아카이빙
- 학술지식의 개방적 접근을 위한 계약 체결

---

학술논문과 같은 학적 지식은 인간과 사회의 건강한 유지·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며, 누군가가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분이 감소하지 않는 공공재

오픈액세스 출판을 위해서는 친숙하고 안정적인 학술지 출판·공유 플랫폼이 필요함. 아울러 학술지 출판 비용, 논문 편집, 플랫폼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됨

## 결론

---

지식공유연대가 상상하는 "OA 출판 전환 선언"은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를 위해 '지식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노력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학술지식의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보 접근권이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위해서, 그리고 질 높은 지식을 편리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서, 공공성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학술지식이 사회적 협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의 몫을 시민사회에 민주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은 공공영역(public)과 지식커먼즈(common)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다.